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부모역할 만족도에 미치는 양육 참여도 및 배우자의 지지*

Effects of Father's Rearing Involvement and Spousal Support on Perceived Parenting Satisfaction

한가람 유치원

원 장 이 은 실

창원대학교 아동가족학과

조교수 최 혜 영

Hangaram Preschool

Director : Eunsil Lee

Department of Child and Family Studies, Changwon National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 Hye Yeong Choi

◀ 목 차 ▶

I. 서론

II. 연구방법

III. 연구결과

IV. 논의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s of rearing involvement by fathers and their wives' supports on father parenting satisfaction.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290 fathers with children aged between 3 to 5. All fathers completed the Parent Satisfaction Scale(Duke, Rose, & Halverson, 1997), Generative Fathering Inventory(Lee, Lee & Cho, 1999) and Spousal Supports for Work and Parenting(Greenberger, Goldberg & Hamill, 1990). The data were subjected to descriptive statistical analysis, independent samples t-test and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The major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that rearing involvement by fathers, responsibility towards their child rearing, and parenting supports from their spouse were significant variables in predicting a father's parenting satisfaction.

주제어(Key Words) : 유아기 자녀(early childhood), 아버지의 부모역할 만족도(father's parenting satisfaction), 양육 참여도(rearing involvement), 배우자 지지(spousal support)

Corresponding Author : Hye Yeong Choi, Department of Child and Family Studies, Changwon National University, 9 Sarim-Dong, Changwon, GyeongNam, 641-773, Korea Tel: +82-55-213-3544 Fax: +82-55-213-3540 E-mail: flora@changwon.ac.kr

* 본 논문은 석사학위 청구논문 중 일부임

I. 서론

현대사회의 급속한 변화 속에서 가족의 역할이 변화하고 있고, 아버지 역할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나면서 아버지도 자녀를 양육할 능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는 인식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는 아버지의 역할이 주변적인 역할이라는 인식에서 적극적으로 자녀 양육에 참여하는 역할 그리고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보다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아버지 상으로 전환하고 있음을 시사해 준다. 지금까지 아버지가 가족을 부양해야 한다는 가치 속에서 자란 아버지들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도구적 역할'을 담당해야 하며, 어머니들은 가사와 자녀양육 그리고 가족과의 정서적 유대관계 등의 '표현적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역할 구분을 자연스럽게 익히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함인희, 1997). 자녀의 양육문제에 있어서도 아버지는 경제적 부양자의 역할을 통해 주 양육자인 어머니를 돕는 주변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온 것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서구 문명의 영향으로 인한 산업화, 도시화에 따라 가족 형태가 핵가족화 되었고, 기혼 여성의 취업이 증가하면서 가정 내에서의 아버지 역할이 부각되게 되었다. 그 동안 양육측면에서 보여준 아버지의 역할이 자녀를 감독하는 수준에 머물렀다면 최근에는 자녀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자녀와 친근하게 상호작용 하는 아버지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점차 커지게 된 것이다(이숙현, 서혜영, 2002).

아버지의 부모역할과 관련하여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부모역할 만족도는 성인기의 대표적인 역할이며 자녀를 양육하며 얻게 되는 생활만족도를 결정하는 중요 역할로 간주하고 있다(김혜연, 신유림, 2005). 부모역할을 만족스럽게 여기는 부모들은 일반적으로 자녀의 동기를 유발시키고 애정 어린 관심을 많이 보임으로써 유아기 자녀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고 한다(Learner & Galambos, 1985; Simons, Whitebeck, Conger, & Melby, 1993). 그러나 부모 역할에 만족하지 못한 부모들은 자녀의 요구에 회피적인 반응을 보이거나 거부적인 태도를 취해 유아기 자녀의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많다고 하였다(문혁준, 2001; 양미경, 1996; 현온강, 1993). 특히 문혁준(2001)의 연구에서는 아버지역할 만족도가 높고 자녀와의 관계가 원만할수록 자녀를 더 합리적이고, 애정적이며, 성취 지향적으로 양육한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아버지들의 긍정적인 양육태도에 부모역할 만족도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임을 보여준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연구에서는 아버지 부모역할 만족도를 설명하고자 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밝히는 데 노력을 기울여 왔다. 다수의 연구들은 아버지 역할 만족도와

관련된 변인으로 자녀의 성이나 연령, 출생 순위, 기질(김혜연, 신유림, 2005; 김혜연, 한애희, 2004; 양미경, 1996)과 관련시키거나, 아버지의 배경적 요인(양미경, 1996; 조복희, 현온강, 1994)과 관련짓고 있다. 이들 연구의 결과를 살펴보면 자녀의 성이 아들이면 경우, 아버지의 연령이 보다 젊은 집단의 경우, 어머니집단 보다는 아버지 집단에서 그리고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부모역할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아버지의 연령이 높을수록 부모역할 만족도가 높다고 보고한 결과도 보고되고 있다(김혜연, 신유림, 2005). 그 외에도 아버지의 부모역할과 가정적 요인(김혜연, 신유림, 2005; 김혜연, 한애희, 2004; 조복희, 현온강, 1994) 간의 관계를 밝힌 연구들도 있다. 그 중에서 김영희, 신희정과 채영문(2007)과 김혜연과 신유림(2005)은 부모역할 만족도와 직접 관련된 변인 중 하나는 아버지의 결혼만족도였으며, 결혼만족도가 높을수록 부모역할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상의 연구들에서는 아버지의 역할 만족도를 아버지의 배경 변인 또는 외적인 변인과의 관련성을 밝혀내려 한 것으로 정작 부모역할 만족도의 주체인 아버지를 배제한 채 자녀나 부인의 관점에서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고 보았다(서혜영, 1999).

부모 역할 만족도와 관련된 최근의 연구들에서는 아버지가 실제로 자녀양육에 참여한 정도와의 관련성을 살펴본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다(김혜연, 신유림, 2005; 양미경, 1996). 이들 연구들에서는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도가 높을수록 아버지역할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아버지들이 자녀양육에 참여하면서 자녀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기회를 얻게 되고 부모역할에 대한 자신감과 만족감이 증대되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김혜연, 신유림, 2005; 양미경, 1996; 황순영, 2004). 또한 이들 연구에서 아버지의 자녀 양육참여도와 만족도 간에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 준 결과는 아버지가 어머니에 비하면 정규적인 양육참여는 덜 하더라도 어머니 못지않은 부모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양미경, 1996)고 하였다. 이렇듯 아버지의 양육참여는 사회적인 요구로 인한 것 뿐 아니라 자녀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해주는 역할을 하여 부모역할 만족도를 높이는데 영향을 미치고, 부모자신의 발달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 결과이다(서혜영, 1999).

다른 측면의 연구에서는 부모역할 만족도와 관련된 또 하나의 요인으로 배우자와의 관계를 살펴보고 있다(도현심, 김지신, 1997; 서혜영, 1999; 이진선, 2006; 이형실, 2000; 임국아, 2004). 배우자의 지원과 아버지 역할만족도 간의 관련성을 살펴본 연구 결과에 의하면(임국아, 2004) 배우자

의 지원을 많이 받는다고 지각한 집단의 아버지들이 부인의 지원을 적게 받는다고 지각한 집단의 아버지들보다 역할 만족도를 높게 지각하고 있어 아버지들의 역할 만족도와 부인의 지원과는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부모역할을 배우자와의 관계와 연계하여 살펴보고자 하는 시도로서 아버지들의 부모역할 경험이 자녀를 중심으로 부인과 공유하는 부분이 많다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자녀에 대한 상대 배우자의 관여를 가지 있게 여기고 양육에 대한 판단을 존중하며, 부부가 자녀양육에 대해서 의사소통이 잘 될 때 부모로서의 협력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이와 유사한 주장으로 Belsky(1984)는 부모가 자녀를 잘 돌보도록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지원체계는 부부 간의 긍정적인 상호관계라고 설명하고 있다. 배우자 지지를 통해 지원 받은 만족은 다른 지원관계에서는 제공될 수 없는 독특한 지원이라는 설명이다(신숙재, 1997). 특히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는 부모 역할에 익숙하지 않으므로 배우자의 지지 정도에 따라 부모역할 만족도에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즉 배우자로부터의 지지를 높게 받을 경우 부모역할 자신감이 낮은 아버지의 심리적 부담감을 덜어 줄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자기 효능감, 삶의 만족, 양육행동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조화선, 2005). 아버지 역할 수행에 있어서 DeLuccie(1996b)는 아동양육에 대한 어머니의 지지도가 영향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으로 생각되며 추후연구에서 밝혀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였다. 서혜영(1999)도 배우자의 역할 기대를 생계 담당자 역할에 대한 기대와 양육참여에 대한 기대로 구분하여 접근하여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부모역할 만족도를 배우자 지지와의 관련시켜 연구할 때는 배우자 지지의 하위 요소인 부모역할을 위한 지지와 직장을 위한 지지로 구분하여 그 관련성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시사해준다고 하였다.

지금까지의 연구들에서 아버지의 역할 만족도와 양육 참여도(양미경, 1996), 아버지의 역할 만족도와 부인의 지원과의 관계(임국아, 2004)를 각각 살펴 본 연구는 있었으나,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도 및 배우자의 지지가 아버지의 부모역할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선행연구는 아직 많지 않다. 부인의 역할기대는 아버지들의 양육 참여도를 결정하는 요인이 된다고 하였으며(허선자, 1992), 아버지의 양육참여는 부모역할 만족도와 상관관계가 있다는 연구결과(양미경, 1996)를 볼 때 이 세 변인과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연구라고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는 어머니와는 양적 질적으로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는 아버지의 부모역할 만족도를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도와 아버지가 지각한 배우자의 지지와의 관계로 구분하여 살펴봄으로써 아버지의 부모역할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밝히고자한다. 이 결과를 토대로 아버지들은 시대적 요구인 '양육자로서의 아버지 역할'을 수행하여 적극적으로 아버지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아버지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자녀양육에 아버지들의 참여정도를 높이기 위한 지원책 마련에 기초 자료로 제공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이상의 연구목적에 위하여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1) 부모역할 만족도는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 2) 부모역할 만족도는 배우자의 지지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 3)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도와 배우자의 지지가 부모역할 만족도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시 소재한 유치원 중 임의로 선정한 7곳의 유치원에 다니는 만 3세, 4세, 5세 아동의 아버지 290명이었다. 본 연구대상인 아버지들의 인구학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아버지의 연령은 36세에서 40세 이하가 52.8%, 41세에서 45세 이하가 24.8%인 것으로 나타나 전체 연구대상의 77.6%를 차지하였다. 아버지의 교육수준은 4년제 대학 졸업자가 57.9%로 가장 많았고, 대학원 졸업자가 17.6% 순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직업은 사무직이 49.6%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은 전문직이 15.2%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취업형태는 전일제로 취업한 경우가 전체 연구대상의 94.8%를 차지하다.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일주일 평균 5시간 이상이라고 응답한 아버지는 77.6%를 차지하였고, 1시간에서 2시간 이하를 가족과 함께 보낸다는 아버지가 13.4%를 차지하였다.

본 연구 대상의 배우자 특성을 살펴보면 배우자의 연령은 36세에서 40세 이하가 전체 연구대상의 44.8%를 차지하였고, 31세에서 35세 이하가 43.8%를 차지하였다. 배우자의 교육수준은 4년제 대학 졸업자가 55.2%로 가장 많았고, 취업형태는 비취업인 경우가 65.2%를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전일제 취업인 경우가 24.8%를 차지하였고, 시간제 취업이 10%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대상 자녀의 연령은 만 3세가 34.1%를 차지하였고, 만 4세가 32.8%를 만 5세는 33.1%의 분포를 보였다. 자녀의 성 구성은 남아가 54.8%, 여아가 45.2%였다.

〈표 1〉 연구대상의 인구학적 특성 (N = 290)

변인	내용	빈도(%)
아버지 연령	31-35세	57 (19.7)
	36-40세	153 (52.8)
	41-45세	72 (24.8)
	46-50세	8 (2.8)
아버지 교육수준	고졸	38 (13.1)
	전문대졸	33 (11.4)
	대졸	168 (57.9)
	대학원이상	51 (17.6)
아버지 직업	전문직	44 (15.2)
	사무직	144 (49.6)
	서비스직	33 (11.4)
	생산직	6 (2.1)
	판매직	20 (6.9)
	무직	1 (0.3)
	기타	42 (14.5)
아버지 취업형태	전일제	275 (94.8)
	시간제	7 (2.4)
	비취업	8 (2.8)
일주일평균 가족과 지내는 시간	1시간미만	6 (2.1)
	1~2시간	39 (13.4)
	3~4시간	20 (6.9)
	5시간이상	225 (77.6)
배우자의 연령	23-30세	10 (3.4)
	31-35세	127 (43.8)
	36-40세	130 (44.8)
	41-45세	22 (7.6)
	46-50세	1 (0.3)
배우자의 교육수준	고졸	61 (21.0)
	전문대졸	41 (14.1)
	대졸	160 (55.2)
	대학원졸이상	28 (9.7)
배우자의 취업	전일제	72 (24.8)
	시간제	29 (10.0)
	비취업	189 (65.2)
자녀의 연령	만 3세	99 (34.1)
	만 4세	95 (32.8)
	만 5세	96 (33.1)
자녀의 성별	남	159 (54.8)
	여	131 (45.2)

2. 연구도구

1) 부모역할 만족도

본 연구에서는 부모역할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Duke, Rose와 Halverson(1997)의 Parent Satisfaction Scale(PSS)을 번안·수정한 임국아(2004)의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개인이 자신의 부모역할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는지를 측정하는 자기보고식 질문지로서 부모역할을 하면서 느끼는 즐거움과 부담감, 부모역할의 중요성에 대한 3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모역할 만족도 척도는 7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에 1점에서 '정말 그렇다'에 7점까지 응답하게 되어있다. 가능한 점수의 범위는 30점에서 21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역할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부모역할 만족도 척도 문항의 내적합치도 계수 Cronbach α 는 .93이었다.

2)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도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자녀양육에 대한 양육 참여도와 책임감을 알아보고자 이영환, 이진숙과 조복희(1999)가 개발한 '생산적 아버지 역할 척도'를 사용하였다. '아버지 양육 참여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생산적 아버지 역할 척도' 중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 활동'과 '자녀양육에 대한 책임감' 2개의 하위영역 총 40문항을 사용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활동'은 26문항으로 '발달적 지지', '자녀 돌보기', '함께 하는 활동'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버지의 양육 책임감'은 14문항으로 '자원 제공자로서의 책임'과 '양육자로서의 책임감'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버지의 양육참여도 척도는 4점 척도로서 '전혀 그렇지 않다'에 1점, '항상 그렇다'에 4점까지 표시하게 되어있다. 가능한 점수의 범위는 40점에서 16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아버지가 자녀의 양육 참여를 많이 한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아버지 양육 참여도를 측정하는 문항의 내적합치도 계수 Cronbach α 는 하위영역별로 양육 책임감은 .88, 양육 참여활동은 .93이었으며 전체 40문항에 대한 Cronbach α 는 .95였다.

3) 배우자 지지

배우자 지지를 측정하기 위하여 Greenberger, Goldberg와 Hamill(1990)의 배우자 지원척도(Spousal Support for Work and Parenting)를 번안하여 사용한 임국아(2004)의 질문지를 일부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배우자 지원척도에는 배우자 지지를 알아보기 위한 문항이 27문항으로 '배우자의 직장을 위한 지원(15문항)'과 '부모역할을 위한 지원(12문항)'의 두 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있다. 각 문항은 4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에 1점, '별로 그렇지 않다'에 2점, '대부분 그렇다'에 3점, '항상 그렇다'에 4점으로 표시하게 되어 있다. 본 척도의 가능한 점수 범위는 27점에서 108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남편이 지각한 아내의 지지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배우자 지지 척도 문항의 내적합치도 계수 Cronbach α 를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부모역할을 위한 지지는 .81, 직장을 위한 지지는 .84로 나타났으며 전체 27문항에 대한 Cronbach α 는 .89였다.

3. 연구 절차

1) 예비조사

본 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측정도구의 적절성과 문항에 대한 이해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연구대상이 아닌 만5세 아동을 둔 아버지 4명과 유아교육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석사학위 이상의 전문가 4명을 선정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를 실시한 결과, 세 가지 도구를 사용하기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되었으며 응답에 소요된 시간은 각각 10분에서 15분 정도였다.

2) 본 조사

본 조사는 2007년 2월에 실시되었다. 질문지는 연구자가 유지원을 직접 방문하여 전달하였으며, 해당 학급의 담임교사들이 유아들을 통해 아버지들에게 배부하였고, 일주일 뒤에 수거하였다. 총 400부의 설문지가 배부되었으며 수거된 질문지는 345부로 회수율은 86%였다. 이중 응답 내용이 불충분한 55부를 제외한 총 290부의 자료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4.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대상의 일반적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고, 각 척도 문항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내적 합치도 계수 Cronbach α 를 산출하였다. 둘째, 측정변인들의 일반적인 경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평균 및 표준편차를 산출하였으며, 상호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셋째,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도, 배우자 지지정도에 따라 부모역할 만족도에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기 위하여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 점수와 배우자 지지 점수를 기준으로 상·중·하 집단으로 나눈 뒤 중집단을 제외한 상집단과 하 집단 간에 *t* 검증을 실시하였다. 넷째, 아버지의 부모역할 만족도에 미치는 자녀양육 참여도, 배우자 지지의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측정 변인의 일반적 경향

본 연구에 사용된 측정 변인들의 가능한 점수범위와 측정 점수범위, 평균, 표준편차, 문항 평균점수를 <표 2>에 제시하였다.

부모역할 만족도는 7점 척도 30문항으로 97점에서 189점으로 분포되었으며 평균은 155.09로 나타났다. 이를 문항평균점수로 전환하면 5.17로 '대부분 그렇다'에 가깝게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대상인 아버지들이 자신의 부모역할에 대하여 비교적 만족하는 것으로 지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버지 자녀양육 참여도는 4점 척도 40문항으로 전체 점수는 58점에서 160점으로 분포되었고 전체 점수의 평균은 117.10으로 나타났다. 이를 문항평균점수로 전환하면 2.93으로 '대체로 그렇다'에 가깝게 나타났다. 하위영역인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활동은 31점에서 104점으로 분포되었고, 전체 점수의 평균은 75.44이었다. 이를 문항평균 점수로 전환하면 2.90으로 아버지들은 자녀양육에 참여하는 활동에 대하여 대체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자녀양육 책임감은 25점에서 56점으로 분포되었고 평균은 41.66이었다. 이를 문항평균점수로 전환하면 2.97로 아버지들은 대체로 자녀양육책임감을 가진다고 생각하였다.

배우자 지지는 4점 척도 27문항으로 전체 점수는 49에서 107점으로 분포되었고 총점평균은 83.54로 나타났다. 이를 문항평균점수로 전환하면 3.09로 '대체로 그렇다'보다 조금 높게 나타났다. 직장을 위한 지지는 23점에서 60점으로 분포되었고 평균은 45.96이었다. 이를 문항평균점수로 전환하면 3.06으로 나타나 대체로 배우자로부터 직장을 위한 지지를 받고 있다고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역할을 위한 지지는 26점에서 48점으로 분포되었고 평균은 37.57이었다. 이를 문항평균점수로 전환하면 3.13으로 나타나 대체로 배우자로부터 부모역할을 위한 지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측정변인인 아버지의 부모 역할만족도, 자녀양육참여도, 배우자의 지지와 아버지의 일반특성 변인들 간

<표 2> 측정 변인의 점수범위, 평균 및 표준편차, 문항 평균점수

(N = 290)

측정변인	문항수	가능한 점수범위	점수범위	평균 (표준편차)	문항평균점수
부모역할 만족도	30	30-210	97-189	155.09(18.61)	5.17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도	전체	40-160	58-160	117.10(15.64)	2.93
	양육참여활동	26-104	31-104	75.44(10.83)	2.90
	양육책임감	14-56	25-56	41.66(5.59)	2.97
배우자 지지	전체	27-108	49-107	83.54(9.83)	3.09
	직장을 위한 지지	15-60	23-60	45.96(6.26)	3.06
	부모역할을 위한지지	12-48	26-48	37.57(4.45)	3.13

〈표 3〉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도에 따른 부모역할 만족도

(N = 195)

측정변인	상집단(n = 97) M(SD)	하집단(n = 98) M(SD)	t	
부모역할 만족도	자녀양육참여 총점	165.25(16.46)	143.52(16.52)	9.20***
	자녀양육참여활동	163.47(17.33)	145.91(17.99)	6.83***
	자녀양육책임감	167.82(14.17)	142.68(15.90)	11.59***

*** $p < .001$.

〈표 4〉 배우자 지지에 따른 부모역할 만족도

(N = 190)

측정변인	상집단(n = 93) M(SD)	하집단(n = 97) M(SD)	t	
부모역할 만족도	배우자지지 총점	165.97(15.43)	146.79(17.44)	8.03***
	직장을 위한 지지	163.20(17.79)	147.87(18.19)	5.81***
	부모역할을 위한 지지	164.76(16.27)	145.93(17.78)	7.91***

*** $p < .001$.

의 상호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 부모 역할만족도는 자녀의 연령($r = -.13, p < .05$), 가족과 지내는 시간($r = .14, p < .05$), 배우자의 취업($r = .12, p < .05$)과 각각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녀의 연령이 낮을수록, 아버지가 가족과 지내는 시간이 많을수록 그리고 배우자가 전일로 일을 할수록 아버지의 부모역할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녀 양육참여도는 자녀의 연령($r = -.14, p < .05$), 가족과 지내는 시간($r = .22, p < .001$)과 각각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녀의 연령이 낮을수록 그리고 가족과 지내는 시간이 많을수록 아버지의 양육 참여 정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아버지가 지각한 배우자의 지지는 자녀의 연령($r = -.15, p < .05$)과 유의한 상관이 나타났다. 자녀의 연령이 낮을수록 배우자의 지지는 높은 것으로 지각하였다.

2.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도에 따른 부모역할 만족도

본 연구의 대상인 아버지들의 부모역할 만족도가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도에 따라 응답자 집단 내에서 상대적으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아버지의 양육참여도 총점, 하위영역인 양육참여활동 점수와 양육책임감 점수를 세 집단으로 나눈 후 상집단과 하집단을 대상으로 t 검증을 실시하였다. 상·중·하 세 집단은 집단 전체를 기준으로 각각 상위 33%, 하위 33%의 점수를 기준으로 나누었다. 상집단의 점수범위는 121점 이상이었고, 중집단의 점수범위는 110-120점이고, 하집단의 점수범위는 109점 이하였다. t 검증 결과는 〈표 3〉에 제시하였다.

〈표 3〉을 보면 부모역할 만족도는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t = 9.20, p < .001$). 즉, 자녀양육 참여를 많이 한다고 지각한 아버지 집단이 자녀양

육 참여를 적게 한다고 지각하는 아버지 집단보다 부모역할 만족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부모역할 만족도는 아버지 자녀양육 참여활동($t = 6.83, p < .001$)과 아버지 자녀양육 책임감($t = 11.59, p < .001$)에 따라 각각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자녀 양육에서 참여 활동을 많이 하고 책임감을 많이 느낀다고 응답한 아버지가 부모 역할에 더 만족한다고 지각한 것을 의미한다.

3. 배우자 지지에 따른 부모역할 만족도

본 연구의 대상인 아버지들의 부모역할 만족도가 배우자 지지 수준에 따라 응답자 집단 내에서 상대적으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아버지의 양육참여도 총점, 하위영역인 양육참여활동 점수와 양육책임감 점수를 세 집단으로 나눈 후 상집단과 하집단을 대상으로 부모역할 만족도에 차이가 있는지 t 검증을 실시하였다. 상·중·하 세 집단은 집단 전체를 기준으로 각각 상위 33%, 하위 33%의 점수를 기준으로 나누었다. 상집단의 점수범위는 88점 이상이었고, 중집단의 점수범위는 79-87점이고, 하집단의 점수범위는 78점 이하였다. t 검증 결과는 〈표 4〉에 제시하였다.

부모역할 만족도는 배우자 지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 = 8.03, p < .001$). 즉, 배우자의 지지가 높다고 지각한 집단이 배우자의 지지가 낮다고 지각한 집단보다 부모역할 만족도가 높았다. 이를 하위영역 별로 살펴보면 부모역할 만족도는 배우자의 직장을 위한 지지($t = 5.81, p < .001$)와 배우자의 부모역할을 위한 지지($t = 7.91, p < .001$) 각각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배우자로부터 직장을 위한 지지를 많이 받는다고 지각한 아버지와 배우자의 부모역할을 위한 지지가 높다고 지각한 아버지가 부모역할에 더 만족한다고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아버지의 부모역할 만족도를 설명하는 변인

아버지의 부모역할 만족도를 설명하는 변인들을 알아보기 위하여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에 앞서 본 연구의 종속변인인 부모역할 만족도와 관련된 아버지의 일반특성 변인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자녀의 연령($r = -.13, p < .05$), 가족과 지내는 시간($r = .14, p < .05$), 배우자의 취업($r = .12, p < .05$)이 부모역할 만족도와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회귀분석에서 이들 세 변인에 대한 영향을 통계적으로 통제한 후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독립변인들의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살펴보기 위하여 분산팽창계수(VIF) 지수, 공차 한계치(Tolerance), Dubin-Watson 값을 알아보았다. 분산팽창계수는 10이하였으며(1.01 ~ 3.02), 공차 한계치는 1에 가까웠으며(0.33 ~ .95), Dubin-Watson 값은 2에 가까워(2.17) 다중공선성이 문제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부모역할 만족도를 종속변인으로 하고 회귀분석 1단계에서 자녀의 연령, 가족과 지내는 시간, 배우자의 취업을 투입함으로써 이상의 변인들의 영향을 통계적으로 통제한 후 2단계에서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도의 2가지 하위영역인 자녀양육참여활동과 자녀양육 책임감을 투입하였다. 다음으로 3단계에서 1단계와 2단계에서 투입한 독립변인의 영향력을 제거한 후 종속변인에 대한 배우자의 지지의 설명력을 알아보고자 배우자 지지의 하위영역인 배우자의 직장을 위한 지지와 배우자의 부모역할을 위한 지지를 투입하였다. 그 결과는 <표 5>와 같다.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1단계로 투입한 자녀연령, 배우자의 취업, 가족과 지내는 시간의 아버지의 부모역할 만족도에 대한 설명력은 약 4%($F = 3.94, p < .01$)로 나타났다. 2단계에서 투입한 아버지의 자녀 양육참여 중 아버지의 자녀 양육 책임감($\beta = .54, p < .001$)의 아버지 역할만족도에 대한 설명

력은 1단계에서 투입한 독립변인의 영향력을 통제하고도 추가로 34%($F = 66.54, p < .001$)인 것으로 나타났다. 3단계에서 투입한 배우자의 지지 중 배우자의 부모역할을 위한 지지($\beta = .16, p < .001$)가 1단계 및 2단계에서 투입한 독립변인의 영향력을 제거하고도 추가로 4%($F = 8.03, p < .001$)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도 중 자녀양육 책임감이 높을수록, 배우자의 지지 중 부모역할을 위한 지지를 많이 받는다고 지각할수록 부모역할 만족도가 높았다. 이는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도의 하위요인 중 자녀양육 책임감과 배우자 지지의 하위요인 중 부모역할을 위한 지지 변인이 부모역할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변인들은 부모역할 만족도에 대하여 총 38%를 설명하였다($p < .001$).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보면,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도 중에서 특히 아버지가 자녀에 대하여 양육 책임감을 높게 지각할수록 그리고 배우자로부터 부모역할에 대한 지지를 많이 받을수록 아버지의 부모역할 만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과를 중심으로 아버지의 자녀 양육 참여도 및 배우자 지지와 부모역할 만족도에 관하여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연구문제를 해결하기에 앞서 부모 역할만족도와 관련된 아버지의 특성 변인과의 관련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아버지의 부모역할 만족도는 자녀의 연령이 낮을수록, 아버지가 가족과 지내는 시간이 많을수록 그리고 배우자가 전일로 일을 할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녀가 어린 경우에 부모역할의 비중은 커지고, 아버지가 가족과 지내는 시간이 많을수록 부모-자녀 관계가 긴밀해지며, 배우자가 일을 가질 경우 상대적으로 아버지가 부모역할을 제공할 기회가 늘어난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첫째,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도에 따른 부모 역할 만족도를 살펴 본 결과, 자녀양육 참여활동 정도와 자녀양육 책임감 정도를 높게 지각한 집단의 아버지들의 부모역할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도의 하위 영역인 자원 제공자로서의 책임감과 양육자로서의 책임감 모두에서 아버지 부모역할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도와 부모역할 만족도간에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양미경, 1996; 황순영, 2004; 황순영, 정영숙, 우수경; 2005)들과 일치한다. 이는 아버지가 자녀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상호작용하는 경우 아버지와

<표 5> 부모역할 만족도에 대한 단계적 중다회귀 분석 결과 (N = 290)

예측변인	부모역할 만족도		
	1단계 β	2단계 β	3단계 β
자녀연령	-.09	-.03	-.02
배우자의 취업	.10	.08	.09
가족과 지내는 시간	.13*	.02	.05
아버지 자녀양육참여활동		-.09	-.13
아버지 자녀양육책임감		.64***	.54***
배우자의 직장을 위한 지지		.09	
배우자의 부모역할을 위한 지지		.16*	
ΔR^2	.04	.30	.04
R^2	.04	.34	.38
F	3.94**	66.54***	8.03***

* $p < .05$. ** $p < .01$. *** $p < .001$.

자녀의 관계가 호전되고, 아버지로서의 자신감과 부모역할에 대한 만족감이 향상되었다는 연구결과(Russel, 1982)와 일관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아버지들이 가정 내에서 아버지 역할을 수행하게 됨으로 자녀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기회를 갖게 되어 이를 통해 부모역할에 대한 자신감과 만족감이 증대되어진 것으로 설명할 수 있겠다(양미경, 1996).

본 연구에서 아버지들이 지각한 부모역할 만족도의 평균이 대체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들의 부모역할 만족도가 높게 나온 결과를 다른 한편으로 해석하자면 자녀양육의 실제적인 역할수행정도보다 자신의 참여정도를 높게 평가하는 경향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결과는 아버지들이 양육 참여 경험이 적어 양육능력에 대해 평가할 구체적인 기준이 없었을 가능성과 양육으로 인한 심리적 부담감이 적어 오히려 스스로에게 후한 점수를 주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버지의 부모역할 만족도가 자녀양육에 참여하는 정도와 관련되었다는 것을 보여준 연구결과를 토대로 아버지들이 자녀 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시사해 준다. 즉 아버지들이 실제적인 양육수행의 방법을 경험하고, 아버지 역할에 대하여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아버지를 대상으로 한 부모교육과 아버지 참여수업 등 다양한 참여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하겠다.

둘째, 배우자가 남편의 직장을 위한 지지, 부모역할을 위한 지지를 높게 지각한 집단의 아버지들이 부모 역할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버지들이 배우자의 지지, 배우자로부터 직장을 위한 지지, 부모역할을 위한 지지 모두에서 지지를 많이 받는다고 응답한 아버지들의 부모역할 만족도가 배우자의 지지가 낮다고 응답한 집단의 아버지들보다 높았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아버지의 부모역할 만족도의 관계변인 중 배우자 지지가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힌 연구결과(도현심, 김지신, 1997; 임국아, 2004)와 부모역할 자신감이 낮은 아버지의 심리적 부담감을 배우자의 높은 지지가 덜어주는 효과가 있음을 보고한 결과(문연옥, 2004) 등과 일치한다. 부인의 기대와 남편의 아버지 역할에 대해 연구한 홍승민(2005)의 보고에 의하면 남편의 아버지 역할에 대한 부인의 기대가 높을수록 아버지 역할수행이 많이 나타났다고 설명하고 있다. 위의 연구들을 통해 볼 때 남편의 부모역할을 지지하는 배우자들은 자녀와의 상호작용의 기회가 적은 남편들에게 자녀에 대한 정보와 아버지 역할 수행에 대한 방법을 제공하여 아버지와 자녀 간의 관계를 호전시켜주고 이를 통해 아버지 부모역할의 만족도가 높이는 데 도움을 주었다는 것을 시사해 준다(서혜영, 1999). 양육행동에 따라서 부부가 함께 받을 수 있는 다양한 부모교육 기회를 확충

하여 부부가 교육을 통하여 보다 협력적으로 자녀 양육에 참여하도록 하며 배우자와의 협력적인 관계를 통해 부모역할 만족도를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부모 역할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대하여 알아본 결과 아버지의 자녀양육참여의 하위영역인 아버지 자녀양육 책임감영역과 배우자 지지의 하위영역인 부모역할을 위한 지지영역이 부모역할 만족도를 설명하는 유의한 설명변인으로 나타났다. 우선 아버지의 자녀 양육참여의 영향력과 관련하여 아버지의 실제적인 양육수행과 관련된 양육참여영역은 유의하지 않았으며 자녀 양육에 참여해야 한다고 느끼는 부모로서의 책임감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아버지 역할 수행에 대하여 아버지들은 자신의 역할에 대해 매우 높게 의식하고 있으나 실행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인식보다 낮았다는 연구결과(박웅임, 1996)에 근거하여 해석해 볼 수 있겠다. 먼저 부모역할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아버지의 자녀양육 책임감으로 나타난 결과에 대한 해석으로 자녀 양육 책임감에 대한 내용과 관련지어 해석해 볼 수 있다. 자녀양육 책임감은 '자녀의 미래를 위해 최소한의 경제적 준비(예를 들면 저축이나 보험 등)를 하고 있다', '자녀를 위해 시간과 에너지를 가능한 많이 투자 한다', '자녀를 위해 불편하더라도 거주지를 옮길 수 있다' 등의 자원 제공자로서의 책임감 영역과, '자녀의 이야기를 잘 들어 주려고 노력 한다', '기꺼이 자녀를 돌보아 주려고 한다', '아이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 주거나 함께 시간을 보내고자 한다' 등의 양육자로서의 책임감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한국 사회에서 아버지가 실제적으로 양육참여 정도는 낮더라도 도구적인 기능 중 하나인 경제적인 책임감을 높게 지각한 결과와 관련된다고 해석해 볼 수 있다. 이러한 해석은 가계수입이 부모역할 만족도와 관련하여 영향을 미친 변인 중 하나임을 밝힌 연구결과(김혜연, 신유림, 2005)에 의해서도 지지될 수 있다.

다음으로 부모역할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변인으로 아버지가 지각한 배우자의 지지로 나타났다. 아버지들은 배우자 지지의 하위영역인 배우자의 직장을 위한 지지와 부모역할을 위한 지지 중 배우자의 부모역할을 위한 지지가 높다고 지각할수록 부모역할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아버지들이 부모역할을 수행 하는데 있어 주위사람의 지원보다 배우자의 협력이 관련성 높게 나타난 신숙재(1997)의 결과와 비교하여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즉 전통적으로 가족을 부양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지닌 채 가사와 자녀양육 그리고 가족과의 정서적 유대관계 등의 '표현적 역할'은 어머니가 담당해야한다는 역할 구분을 자연스럽게 익히며 자란 아버지들에게(함인희, 1997) 부인의 기대와 가치 기준은 아버지들이 양육 기술을 습득하는데 역할 모델이자 지침

이 될 수 있다는 결과(홍승민, 2005)와 일치되는 양상을 보였다. 배우자를 역할을 ‘문지기 역할(gate keeper)’로 설명한 DeLuccie (1996a)의 표현처럼 자녀 양육에 자신 없어 하고, 부족함을 느끼면서 걱정하는 아버지들에게 배우자의 부모 역할 지지가 중간자역할의 기능을 수행하여 아버지들은 양육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받게 된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하여 본 연구의 의의와 시사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버지들의 부모역할 만족도에 자녀 양육 책임감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것은 시대적으로 아버지들이 양육자적인 역할을 중요시 여기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으며 아버지들이 양육참여에 시간을 할애 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해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아볼 수 있다. 둘째, 여성인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했던 선행연구들과는 달리 본 연구는 양육 참여와 배우자의 지지가 부모역할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아버지를 대상으로 파악하고자 시도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셋째, 아버지들의 부모역할 만족도에 배우자의 부모역할에 대한 지지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아버지의 부모역할은 배우자인 어머니가 협력적이고 긍정적인 관계일 때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할 때 부부관계를 이해하고 상호 협력할 수 있는 요소로 구성할 기초 자료를 제시해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을 밝히며 추후 연구를 위해 제언을 하고자한다. 첫째, 설문지를 가정으로 보내어 작성하도록 하여 설문지 작성 시의 아버지 지각이 평소에 지각하는 정도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제한점이 있다. 둘째,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도, 배우자의 지지와 부모역할 만족도 간의 관계는 일방적인 관계라기 보다 양방향적인 관계라고 볼 수 있다. 이 세 변인 간의 관계에서 자녀의 특성 변인이 상호작용 효과를 나타내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향후 진행되어야 할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아버지가 지각한 자녀양육 참여도를 어머니가 지각한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도와 비교해 봄으로써 자녀양육 참여에 대한 역할 인식과 역할 수행과의 관계를 비교해 보는 것도 흥미로운 과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버지가 자녀의 양육에 참여하는 정도가 높은 아버지의 부모역할 만족도가 높았다. 둘째, 배우자의 아버지 역할에 대한 지지를 많이 받은 아버지의 부모역할 만족도가 높았다. 셋째, 부모역할 만족도는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도 중에서는 자녀양육 책임감, 배우자 지지 중에서는 부모역할을 위한 지지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참고문헌

김영희, 신희정, 채영문(2007). 원가족의 정서분위기, 결혼 만족도 및 부모역할 자신감이 유아기 아버지의 양육참여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12(2), 67-87.

김혜연, 신유림(2005).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역할만족도와 관련된 변인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3(5), 93-102.

김혜연, 한애희(2004).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역할만족도에 관한 연구. **제주관광대학 논문집**, 10, 81-98.

도현심, 김지신(1997). 사회적 지지 및 부모역할만족도와 어머니의 양육행동. **대한가정학회지**, 35(6), 127-135.

문연옥(2004). 유아기 아버지의 자녀양육에 대한 인식과 양육참여에 관련된 요인.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문혁준(2001). 부모역할 만족도와 양육태도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9(1), 205-219.

박용임(1996). 아버지 역할에 관한 고찰. **안동대학교 논문집**, 18, 189-203.

서혜영(1999). 남성의 일-아버지 역할 갈등과 부모 역할 만족도 및 부모로서의 유능감.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신숙재(1997).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사회적 지원과 부모 효능감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양미경(1996). 아버지의 자녀양육참여도와 부모역할 만족도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4(4), 87-101.

이숙현, 서혜영(2002). 기혼 남성의 삶의 질에 관한 연구. **가족과 문화**, 14(2), 3-30.

이영환, 이진숙, 조복희(1999).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생산적 아버지노릇: 척도 개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7(12), 79-89.

이진선(2006). 어머니의 아동기 경험, 부모역할 만족도 및 배우자의 부모역할 지지와 자녀양육 행동 간의 관계.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이형실(2000). 기혼 취업여성과 남성의 직업스트레스, 배우자 지원 및 심리적 복지.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8(4), 47-55.

임국아(2004). 부모 전이기 남성의 정서 표현성과 부인의 지원 및 역할 만족도.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조복희, 현온강(1994). 한국 부모의 부모역할 만족도. **대한가정학회지**, 32(5), 97-108.

조화선(2005). 유아기 아버지의 자녀 양육참여에 관련된 요인과 양육태도.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함인희(1997). 현대사회 아버지상의 재발견. **가족과 문화**, 9(2), 1-24.
- 황순영(2004). 아버지의 양육참여도 및 역할만족도와 유아의 사회적 능력간의 관계.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황순영, 정영숙, 우수경 (2005). 사회 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와 역할만족도 및 유아의 사회적 능력. **한국생활과학회지**, 14(4), 521-529.
- 허선자(1992). 아버지의 역할지각 및 양육참여 행동에 영향을 주는 변인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현온강(1993). 어머니의 부모역할 만족도와 관련변인. 동국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홍승민(2005). 부모 전이기 남성의 아버지 됨에 대한 긍정적·부정적 지각과 아버지 역할 수행.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Belsky, J.(1984).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A process model. *Child Development*, 55, 83-96.
- DeLuccie, M. F.(1996a). Mothers: Influential Agents in father-Child Relations. *Genetic social psychology monographs*, 122(3), 115-135.
- DeLuccie, M. F.(1996b). predictors of paternal involvement and satisfaction. *Psychological reports*. 1352-1359
- Duke, H. D., Rose, H, A., & Halverson, C. F.(1977). Predictors of parenting satisfaction. *Paper presented at 58th NCFR conference, Kansas City, Missouri.*
- Greenberger, E., Goldberger, W. A., & Hamill, S.(1990). *Spousal Support for Work and Parenting(SSWP).*
- Lerner, J. V., & Galambos, N. L.(1985). Maternal role satisfaction, mother-child interaction, and child temperature: A process model. *Developmental Psychology*, 21, 1157-1164.
- Russel, G.(1982). Shared-caregiving families: An Australian study. In M. Lamb(Ed.), *Nontraditional Families: Parenting and Child Development*,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 Simons, R. L., Whitebeck, L. B., Conger, R. D., & Melby, J. N.(1990). Husband and wife differences in determinants of parenting: A social learning and exchange model of parental behavior. *Journal of Marriage & Family*, 52, 375-392.

접 수 일 : 2009년 3월 31일

심사시작일 : 2009년 4월 1일

게재확정일 : 2009년 4월 16일